

<철령가>에 대한 반향의 두 시각

최재남*

1. 서언
2. 기상의 저상에 대한 염려
3. 애군불망지성의 태도
4. 가곡의 정서의 방향에 대한 논의
5. 소결

<국문초록>

이항복(1556~1618)이 철령을 넘으면서 지은 <철령가>는 이미 당대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정치적 국면이 바뀐 17세기 후반에는 그 반향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난다. 당대의 이정구와 17세기 후반 송시열의 반향이 그것이다.

당대에 이정구는 기상의 저상을 염려하면서 학문하는 신하의 태도를 강조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여기에는 <수조가>에 대한 이해와 굴원의 내면에 대한 반응도 포함되어 있다. 17세기 후반 송시열의 반향은 <수조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소동파를 배려한 송나라 신종을 환기하면서 임금의 태도와 정치적 상황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는 결국 정서의 내면에 관한 반향과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해의 방향이라는 두 시각으로 갈라진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신하의 입장에서 자신의 내면을 어떤 방향으로 드러내어야 하는 축과 임금의 입장에서 이러한 일을 어떻게 수습하고 받아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평가로 갈라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철령가>에 대한 반향의 두 시각을 통하여 가곡의 정서의 방향에 대한 논의 과정을 살피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17세기 초반에는 학문하는 선비의 입장에서 가곡의 정서에서 기상의 저상을 염려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는데, 17세기 후반 이후 정치적 국면의 변화에 따라 인물에 대한 재평가와 작품에 대한 재해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전환은 정서의 방향과 그 해석에 있어서 정치적 변화 국면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인지 하는 과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있다.

핵심어 : <철령가>, 이정구, 기상의 저상, 송시열, 굴원, 소동파, 수조가, 신하의 태도, 임금의 태도

1. 서언

공업(功業)과 문장(文章)을 이룩했다고 평가받는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은 선조·광해군 시대의 명재상이자 국난을 극복한 공신인데, 광해군 때에 대북파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폐모론(廢母論)으로 정치의 국면이 소용돌이치자 정사년(1617) 10월에 폐모론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폐대비의(廢大妃議)>¹⁾를 헌의(獻議)했다가, 삼사(三司)가 절도에 위리안치하기를 청하게 되었고 여러 차례 유배지가 바뀌다가 결국 북청(北靑)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이항복이 철령을 넘으면서 지은 <처음에 삼수로 유배하라는 명이 내렸다가 다시 북청으로 바꾸어서 길이 철령을 넘으므로 기뻐서 짓다(始有三水之命 命改北靑 路踰鐵嶺 喜而有作)>에서는 꿈결에도 임을 그리워하며 조희의 반열을 따르겠다고 하였다. 함련에서 주변의 환경이 고난을 예고하고 있지만, 경련에서 임금의 은혜를 고마워하고 자신의 마음도 깨끗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미련에서 꿈결에도 임을 그리워하며 조희의 반열을 따르겠

1) 『백사집』 『별집』 권3, 『丁巳十月廢大妃議』

다고 하였다. 임금으로 지목되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미련에 집약되어 있다.

외로운 신하는 제인의 관문을 넘지 않는데
일월은 밝고 밝아 우주는 넓네.
푸른 바다의 성낸 소리는 바람의 기세이고
흰 산의 외로운 그림자는 눈이 험준하네.
은혜가 보태지니 사새(沙塞)에 얼음이 먼저 녹고
마음이 튼튼하니 관하(關河)에는 길도 어렵지 않네.
오직 임 그리워서 천리 밖에서 꿈을 꾸노라니
새벽에 잔월을 따라 조희의 반열을 따르네.
孤臣不度濟人關 日月昭昭宇宙寬
青海怒聲風氣勢 白山孤影雪孱顏
恩加沙塞氷先泮 心健關河路不難
唯有憶君千里夢 曉隨殘月趁朝班²⁾

그런데 같은 시기에 지은 것으로 알려진 <철령가(鐵嶺歌)>는 대상에 대한 내면 인식은 같다고 하더라도 표면화의 양상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강원도 회양과 함경도 안변의 경계에 있는 철령을 넘으면서 자신의 느껴온 마음을 읊은 것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鐵嶺 노끈 峰에
쉬어넘는 저 구름아
孤臣冤淚를 비사마 썩여다가
넘계신
九重深處에 뿌려본들 엇드리 『청구영언(진본)』¹⁰³

이 노래는 바로 도성으로 알려지면서 당대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심지어 광해군이 마련한 잔치 자리에서 궁녀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

2) 『백사집』 권1, <始有三水之命 命改北靑 路踰鐵嶺 喜而有作>

을 듣고 추연해 했다는 일화³⁾도 전한다. 원지로 유배되어 떠나는 신하의 내면이 표면에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다. 실제 이러한 유배체험의 충격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표출되는 것이어서 그 층위에 따라 고통을 밀고 나가기, 고통을 완화하기, 고통을 다른 방법으로 변환하기 등 몇 가지 가닥을 설정할 수 있다.⁴⁾ 이러한 내면의 표출은 유배된 사람의 내면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어서 내면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적 변용을 거치기도 한다. 그런데 <철령가>는 이 노래를 부른 이항복의 내면화보다 당대 사람들과 후대에 보인 반향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당대의 정치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곡에 드러난 정서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이 노래에 대한 반향은 일정한 것이 아니라 크게 두 가지 시각으로 갈려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뒷날 송시열이 “애군불망지성(愛君不忘之誠)”으로 평가하면서, “원노분격지의(怨怒憤激之意)”로 이해하는 다른 시각을 비판⁵⁾한 바 있는데, 바로 이 두 시각이 <철령가>에 대한 반향의 방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핵심은 “고신원루(孤臣冤淚)”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이 반향의 방향을 정하게 된 셈이다. 당대에 이정구의 반향은 기상의 저하를 염려하는 쪽이었고, 여기에는 <수조가>에 대한 이해와 굴원의 내면에 대한 반응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송시열의 반향은 기본적으로 <수조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소동파를 양이한 송나라 신종을 환기하면서 임금의 태도와 관련한 광혜군 시대의 정치적 상황과 연결시키고 있다. 결국 정서의 내면에 관한 반향과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해의 방향이라는 두 시각으로 갈라진 것이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신하의 입장에서 자신의 내면을 어떤 방향으로 드러내어야 하는 축과 임금의 입장에서 이러한 일을 어떻게 수습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평가로 갈라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예시한 바와 같이 한시에 드러난 태도는 “애군불망지성(愛君不忘之

3) 宋時烈, 『書白沙鐵嶺歌後』, 『宋子大全』 卷148, 『한국문집총간』113, 180면. “廢朝遊宴後庭, 聞一宮人唱此, 聞知爲公作, 愀然不樂, 因泣下而罷酒, 其聲詩之感人也如是夫.”

4) 최재남, 『유배 체험의 내면화와 시적 변용』, 『한국한시연구』 13집(한국한시학회, 2005), 394~402면 참조.

5) 宋時烈, 『書白沙鐵嶺歌後』, 『宋子大全』 卷148, 『한국문집총간』113, 180면.

誠)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서 한시와 가곡 사이의 미묘한 차이가 감지되고 있다. 가곡을 중심으로 살피면서 후대의 반향이 지니는 성격과 그 의미를 살피도록 한다. <철령가>에 대한 반향에서 이정구는 마음의 바탕을 깨끗하게 가져야 한다는 학문하는 사람의 기본 태도를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송시열은 정치적 국면과 연결시키면서 이항복을 양이(量移)시키지 못한 임금에 대한 은근한 비난까지 이끌고 있다.

2. 기상의 저상에 대한 염려

<철령가>가 지어진 17세기 초반에는 학문하는 신하의 입장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의 태도를 중시하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정구의 반향이 바로 단적인 예이다.

이정구는 <철령가>가 지어지고 난 직후에 절구 1수와 <철령가>를 접하고 이항복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작품이 지닌 기상의 저하에 대해 염려하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출하고 있다.

조통판이 와서 대감의 절구 1수를 전해 주었고, 근자에 또 어떤 사람이 대감의 가곡을 전해 주었습니다. 대궐을 그리워하는 정의가 가득하고 괴로운 말이 매우 처연하여 소리 높여 외노라니 절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전날 동강에 계실 때 부처 주신, “영균의 마음이 너그럽지 못한 것을 도리어 비웃네.”라는 구절에 비하여 기상이 자못 저하된 듯하니, 먼 변방의 황량한 곳에서 회포가 절로 평안치 못하여 그러한 것입니까? 생각하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이 시에 보운한 시 한 수와 달을 보며 회포를 적은 시 한 수를 별지에 적어 보내니, 고적한 중에 천리 밖의 사람을 대한 듯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짧은 시 한 수를 보냅니다. 이는 지난겨울 찾아빌 때 입으로 읊고 아이를 시켜 구두로 전달한 것인데 끝내 감추어 둘 수만은 없어 보여 드리니, 보신 뒤에 속히 불태워 다시 구설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⁶⁾

6) 『월사집』 권35, 「答白沙」, “趙通判來傳台絕句, 近又有人傳台歌曲. 思歸戀闕, 情意藹然, 苦語

<증백사이상공(贈白沙李相公)>의 서에 따르면 광해군 9년(1607)에 대북파에서 박몽준(朴夢俊) 등을 사주하여 연이어 소장을 올려 광해군의 모후인 인목대비를 폐위할 것을 청하였고, 이때 이항복은 재상에서 체직되어 교외의 독촌(禿村)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정구는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 두문불출하고 있다가 아들 명한(明漢)을 데리고 이항복을 찾아가서 사생을 같이하기로 맹세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두로 읊은 것이다. 이것이 위의 편지에서 말한 짧은 시이다. 구설에 오를 것을 염려한 바와 같이 이 시에는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국면들에 대한 조심스러운 입장 표명도 포함되어 있다.

백발에 다시 서로 만나니
 남은 삶이 각각 성스러운 은혜이네.
 우리 동배는 오직 죽음만 있을 뿐이니
 세상일은 말하고 싶지 않네.
 물이 넓으니 교룡이 숨고
 겨울이 따뜻하니 기러기와 오리가 놀라네.
 비긴 헛살에 몇 줄기 눈물 흘리며
 목릉촌에 말을 세우네.
 白髮重相見 餘生各聖恩
 吾儕唯有死 世事欲無言
 水闊蛟龍蟄 冬暄雁鷺喧
 斜陽數行淚 立馬穆陵村⁸⁾

그런데 앞에 인용한 편지보다 미리 쓴 편지에서는 결국 유배지로 떠나게 된 상황에서, 독서의 공력이 확고한 힘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당당한 태도로 유배의 길을 떠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淒然，誦之自然淚涔下。然比之前日在東岡時所寄却笑靈均意不寬之句，氣象頗似低垂，豈絕塞窮荒，懷抱自不能平耶？思之邑邑。步韻一絕及見月有懷一律，錄在別紙，孤寂中幸爲千里面目，如何？又短律，是前冬進別時口占，而令豚兒口達者，不能終隱，覽過快付丙，勿令更添齒舌也。不宣。”『국역 월사집』 5, 173~174면. 최재남, 『이정구의 가곡과 풍류에 대한 인식 고찰』, 『반교어문연구』 32집(반교어문학회, 2012), 210면 참조.

7) 『월사집』 권14, 『폐축록 상』, <贈白沙李相公>

8) 위와 같은 곳.

누워서 생각하니 배소로 떠나시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 자연 눈물이 베갯머리를 적십니다. 이는 단지 고구와 이별하는 아쉬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60년 동안 독서하신 것이 바로 오늘 같은 날 득력(得力)하기 위해서이니, 흔쾌히 가시리라 믿습니다.9)

오랜 세월 글을 읽으면서 학문을 한 선비로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깊이가 깨달아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급변하는 정치적 국면에서 사생을 함께 하기로 한 다짐, 오랜 세월 독서의 공력으로 위기 상황에서 득력(得力)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제된 입장에서, <철령가>에 드러난 내용은 신하가 대궐을 그리워하는 정의가 가득한 것은 기본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괴로운 노랫말이 매우 처연하게 들려서 소리높이 외노라니 눈물이 흘러내린다고 하였다. <철령가>가 그리움에서 말미암은 슬픔을 담고 있으며, 접매 동강(東岡)에서 굴원(屈原)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보낸 시와 견주어보니, 슬픔으로 인하여 기상(氣象)이 매우 저하된 것으로 느껴져서 마음이 우울해진다는 것이다.

굴원은 전국시대 초나라의 대부이며 문학가로, 이름은 평(平)이고 자는 원(原)이다. 회왕(懷王)의 신임이 두터웠는데 참소를 당하여 소원되매 『이소(離騷)』를 지어 찬탄하였으나 용납되지 아니하고 유배되어 <회사(懷沙)> 등을 짓고 먹라수에 빠져죽었다.10) 굴원의 태도는 자신의 유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원망의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 예시한 편지에서 인용한 “영균의 마음이 너그럽지 못한 것을 도리어 비웃네.”라는 구절은 이항복이 동강(東岡)으로 물러나서 지내면서 이정 구에게 보낸 시 <성정에게 부치다(寄聖徵)>11)의 결구인데,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월사집』 권35, 『又』, “臥想登程在今日, 自然淚在枕邊, 非獨爲故舊分離之恨也. 六十年讀書, 正爲今日得力, 只應快適.” 『국역 월사집』 5, 170면.

10) 『史記』 권84, 『屈原賈生列傳』, 『史記』(中華書局, 1982), 2481~2491면.

11) 『백사집』 권1, 원제는 <寄聖徵>이다.

누가 쇠약한 힘으로 허망하게 산을 지게 했던가?
 천은으로 늘그막에 강가에서 늙게 허락하셨네.
 택반(澤畔)에서 읊조리며 용모는 마른 나뭇가지 같았으니
 도리어 영균의 마음이 너그럽지 못한 것을 비웃네.
 瑣力誰令妄負山 天恩晚許老江干
 行吟澤畔形枯槁 却笑靈均意不寬

기구와 승구는 이항복 자신의 일을 말하고 있고, 진구와 결구는 굴원의 사정과 그의 처신에 대한 태도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관직에서 물러나 서울 근교의 동강(東岡)에서 지내는 자신의 삶을 천은이라고 이해하면서, 비록 굴원이 쫓겨나서 못가에서 지내느라 야위고 생기를 잃어서 고고(枯槁)한 형세이기는 하지만, 뜻이 너그럽지 못한(不寬) 그의 태도는 마땅하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영균(靈均)은 초나라 굴원(屈原)의 별호인데, 회왕(懷王)의 신임을 받았으나 상관대부(上官大夫) 근상(靳尚)의 참소를 입게 되어서, 『이소(離騷)』를 지어서 충간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쫓겨났다. 그는 강가에서 지내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못가에서 읊조리느라 안색이 초췌(憔悴)하고 형용이 고고(枯槁)하였다. 한편 어부를 만나서 굴원이 “은 세상이 흐린데 나만 홀로 맑으며, 못 사람들이 모두 취했는데 나만 홀로 깨어 있다. 이로써 쫓겨났다.(舉世混濁而我獨清 衆人皆醉而我獨醒 是以見放)”라고 하자, 어부가 “무릇 성인은 어떤 일에 엉기거나 막히지 아니하고 세상과 더불어 움직일 수 있고, 온 세상이 흐리다고 어찌 그 물결을 따르지 않으랴 하면서 그 물결을 흘날리며, 못 사람들이 모두 취했다고 어찌 그 지게미를 먹지 않으랴 하면서 그 술을 마시니, 무슨 까닭에 아름다운 옥을 품고 아름다운 옥을 쥐고 있으면서 스스로 쫓겨나게 하는가?(夫聖人者 不凝滯於物而能與世推移 舉世混濁 何不隨其流 而揚其波 衆人皆醉 何不餽其糟而啜其醪 何故懷瑾握瑜 而自令見放焉)”¹²⁾라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다가, <회사(懷沙)>를 짓고는 먹러수에 빠져죽었다. 이렇듯 굴원은 자기 자신은 깨끗하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쫓겨난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으므로, 너그

12) 『史記』 권84, 『屈原賈生列傳』, 『史記』(中華書局, 1982), 2486면.

러운 마음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항복은 굴원의 태도가 너그럽지 못하다고 비판한 것인데, 굴원이 세상이 모두 흐리고 취해 있다고 하고 자신만 홀로 맑고 깨끗하여 용납되지 못한다고 인식한 것에 대하여, 이항복이나 이정구 모두 이러한 태도를 너그럽지 못한(不寬) 태도로 이해한 것이다. 그런데 이정구는 이항복의 <철령가>에서 매우 기가 꺾인 태도를 읽어낸 것이다. 이로 볼 때 이정구는 이항복의 태도가 흔들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고, 기상의 저상(沮喪)은 바람직한 정서의 방향이 아니라고 경계한 것이다.

한편 북청에 유배된 이항복은 <야좌(夜坐)>에서 돌아갈 날을 손꼽아 헤아리면서 새벽달(曉月)과 외기러기(孤鴻)를 통해 한양으로 돌아가고 싶은 내면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밤새도록 고요히 앉아 돌아갈 길을 헤아리는데
새벽달이 사람을 엿보며 밝게 문에 들어오네.
갑자기 외기러기가 하늘 바깥을 지나가니
올 때는 응당 한양성에서 출발했으리.
終宵默坐筭歸程 曉月窺人入戶明
忽有孤鴻天外過 來時應自漢陽城¹³⁾

앞에서 인용한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시가 이정구에게 전달되었고, 이정구는 <오성 상공의 시에 차운하여 도로 부치다. *이때 나와 오성이 함께 대간의 탄핵을 받았는데, 오성이 먼저 죄를 받고 북청으로 귀양 가다>¹⁴⁾를 지어 보내면서, 이항복의 내면에 대한 이해를 드러내고 있다. 소식을 전하는 기러기가 <철령가>를 전해주었으며, 그리고 후주(後註)에서 밝힌 것처럼 당시에 서울 사람들이 이항복이 철령을 넘으면서 부른 <철령가>를 성대하게 전한다¹⁵⁾고 하면서, <철령가>를 <수조가(水調

13) 『백사집』 권1, <夜坐>

14) 『월사집』 권14, 『폐족록 상』, 원제는 <次龍城相公韻却寄 *時與龍城同被臺評 龍城先被 竄在北青>이다. 이 시에 함께 수록한 원운은, “中宵不寐筭歸程 缺月窺人入戶明 忽有孤鴻天際去 來時應自漢陽城”으로 되어 있다.

15) 時洛下人 盛傳相公過嶺時歌曲

歌>에 견주어서 이해하고 있다.

관산의 길 얼마의 거리라고 말하지 마오
 대궐의 문이 지척인데 춘명은 막혔다네.
 무단히 하룻밤 남쪽으로 날아온 기러기에
 <수조가> 소리가 도성에 가득하네.
 休說關山路幾程 脩門咫尺隔春明
 無端一夜南來雁 水調歌聲滿洛城

이정구가 이항복의 <철령가>를 <수조가(水調歌)>에 견주어 말하고 있는 것은 앞에 인용한 편지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상이 저하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수조가>는 악부 상조(商調)의 곡명으로 수나라 양제가 강도에 거동하여 지었다고 전해지는 것으로, 성운(聲韻)이 원절(怨切)하다고 평가를 받는 노래이다. 『악부시집(樂府詩集)』 『수조가(水調歌)』에 “『악원(樂苑)』에 ‘수조가는 수 양제(隋煬帝)가 강도(江都)에 갔을 때에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곡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연주하자, 소리가 매우 원망스럽고 처량했다. 왕영언(王令言)이 이를 듣고 나서 그 제자에게 이르기를, 『떠나가는 소리만 있고 돌아오는 소리는 없으니 황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뒤에 과연 그와 같았다.’ 했다.(樂苑曰 水調商調曲名也 舊說水調歌傳隋煬帝幸江都時所製 曲成奏之 聲韻怨切 王令言 聞而謂其弟子曰 但有去聲而無回韻 帝不返矣 後竟如其言)”¹⁶⁾

그런데 『벽계만지(碧鷄漫志)』 『가곡(歌曲)』에서는 <수조가>가 곡명이 아니라 음조(音調)가 다른 것을 가리키는 세속에서 부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⁷⁾ 그러므로 <수조가>는 구체적인 곡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 원망스럽고 처량한 음조를 지닌 노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항복은 결국 북청의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이정구가 이항복의

16) 『중문대사전』 『水調歌』

17) 『중문대사전』 『水調歌』, “子數見唐人說水調 各有不同 予因疑水調非曲名 乃俗呼音調之異名”. 그리하여 唐樂曲南呂商, 中宮調, 中管林鐘商, 一句七字曲, 一句五字曲, 水調新腔, 水調銀漢曲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죽음을 애도한 <백사 상공에 대한 만사 3수>¹⁸⁾의 둘째 수에서도 <수조가>에 견주면서 <철령가> 속의 노랫말을 인용하고 있다.

마음은 똑같이 우리 임금을 사랑하는데
 마음대로 백간을 어이 차마 들으랴?
 다만 상담(湘潭)으로 앞뒤로 떠남에 비기었지
 누가 천로(泉路)에 사생이 나뉠 줄 알았으랴?
 산동의 발자취라는 떠도는 말로 돌아오지 못했는데
 영외에서 지은 글인 <수조가>만 부질없이 전해지네.
 천고의 충성스런 님이라 응당 눈물이 많아서
 눈 덮인 찬 봉우리 돌아가는 구름에 뿌리리.
 寸心同是愛吾君 白簡縱橫尙忍聞
 只擬湘潭先後發 誰知泉路死生分
 流言未返山東鳥 水調空傳嶺外文
 千古忠魂應有淚 雪寒峯上灑歸雲

한편 협주에서 “백사가 철령을 넘을 때 부른 가곡 중에 이러한 말이 있다.(白沙過嶺時歌曲中 有此語)”라고 하여, “눈 덮인 찬 봉우리 돌아가는 구름에 뿌리리.(雪寒峯上灑歸雲)”가 <철령가>에 나오는 노랫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항복이 묘당을 구하고 나라를 위하여 바친 충혼(忠魂), 그리고 대궐을 그리워하는 정의 등은 매우 소중하게 인정하면서도, <철령가>에 드러난 처연(淒然), 원절(怨切), 기애(寄哀) 등의 슬픔의 정서는 독서를 통하여 득력(得力)해야 하는 선비로서 경계해야 할 태도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정구는 다른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북청의 유배지에서 이항복의 심리적 태도가 기상이 저하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학문하는 선비가 지녀야 할 곳곳한 기상을 잃어가고 있는 데 대한 염려의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18) 『월사집』 권14, 『계축록 상』, 원제는 <挽白沙相公三首>이다.

지난달 세 차례 서찰을 부쳐 왔는데 서찰에 괴로워하는 말이 많아 예전의 기상과는 달랐으며, 심지어 “날마다 철령을 넘어가서 송추로 돌아가 죽기를 바란다.”는 등의 말이 있기에 매우 우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달래는 내용으로 답장을 써서 보냈는데 서찰이 전달되기도 전에 부음이 이르렀으니, 어찌면 이렇게 될 줄 미리 아셨던 것은 아닐는지요.¹⁹⁾

기상의 저상에 대한 이정구의 염려는 개인이 가지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염려로 드러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삼가 비망기를 보건대 ‘거간(巨奸)이 주장한다’는 하교가 있으니, 이는 온 조정을 모두 의심하는 것입니다. 성명의 시대에 어찌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기상 저상(沮喪)될까 참으로 두려우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군정을 굽어 살펴 위엄을 조금 거두심으로써 신료들이 화합하고 조정이 진정되도록 해 주시면 더없이 다행이겠습니다.²⁰⁾

사람들의 마음이 저상되고 조야가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이 어찌 국가의 복이겠습니까. 신 등은 근심과 변민을 이기지 못하여 감히 이렇게 아울러 진달하니,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유념하여 살펴보시고 흔쾌히 윤희해 주소서.²¹⁾

그리고 실제 저상(沮喪)은 낙담, 의기소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으로 『장자』 『소요유』의 다음 문맥과 닿아 있다.

그리고 세상 모두가 칭찬한다고 더욱 힘쓰는 일도 없고, 세상 모두가 헐뜯어도 기가 죽지 않는다. 다만 내심과 외물의 분별을 뚜렷이 하고 영예와 치욕의 경계를 구분할 뿐이다.²²⁾

19) 『월사집』 권36, 『書牘 下』, 『答李綏之 綏錄』, 『국역 월사집』 5, 215면.

20) 『월사집』 권27, 『계사』, 『與領相詣賓廳啓辭』, 『국역 월사집』 4, 230~231면.

21) 『월사집』 권27, 『계사』, 『賓廳啓辭』, 『국역 월사집』 4, 238면.

22) 『莊子』 『逍遙遊』, 且舉世而譽之, 而不加勸, 舉世而非之, 而不加沮, 定乎內外之分, 辯乎榮辱之竟, 斯已矣.

기상의 저상에 대해 이토록 염려하고 경계하게 된 것은 선비 된 사람이 학문을 하면서 지켜야 할 태도로 기상(沮喪)을 막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문을 하는 선비가 지녀야 할 태도로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 삶의 자세를 가질 때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면서, 여유 있고 화평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삼가 생각건대, 도(道)에는 고금이 없으나, 예전에는 성현(聖賢)이 있었고 지금은 성현이 없으니 선비 된 사람이 어찌 옛것을 사모하지 않으리오. 백성은 상덕(常德)을 타고났으나 학문이 아니면 그 이치를 밝힐 수 없으니, 선비 된 사람이 어찌 학문을 앎을 수 있을 것인가. 명분만 옛것을 사모하고 학문을 한다 하면서 방심하여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유독 한때의 폐단만은 아닌 것이다. 세상이 쇠하고 풍속이 퇴폐하여 선비 된 사람은 이미 향학의 정성이 적고, 시군세주(時君世主)도 따라 학문의 이름을 미워하니, 유자(儒者)의 기운이 저상(沮喪)하고 유속(流俗)의 무리가 뜻을 얻는 것은 말세의 공통된 병인 것이다. 저 성세장은 비부(鄙夫)가 그 말을 상관할 것이 없으나, 단지 한스러운 것은 임금의 마음이 속류(俗流)와 깊이 합하여 마침내 선을 좋아하는 싹을 보전할 수 없으니, 어찌 우울하지 않으랴.²³⁾

공의 사람됨으로 말하면, 어눌하여 말슴씨가 형편없었는데, 그럴듯하게 꾸며 대는 일은 하나도 없이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마구 쏟아 내곤 하였으며, 일단 자기 마음속으로 옳은 일이라고 여기면 그대로 행동으로 밀고 나가곤 하였다. 그리고는 어떤 위세도 겁내지 않고 자신을 이롭게 하는 일에도 빠져 들지 않으면서, 남이 뭐라고 비웃고 조롱하거나 간에 의기(意氣)가 저상(沮喪)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일을 대개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하루같이 고수하였다.²⁴⁾

결국 이정구가 염려한 기상(沮喪)의 저상은 선비 된 사람으로서 학문을 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신하의 자리에서 보여야 할 태도의 당위성을

23) 이이, 『석담일기』, 권하, 선조 2년(1579) 12월, 『국역 대동야승』 IV, 259면.

24) 이식, 『綾海君草塘具公行狀』, 『택당선생별집』 9, 『한국문집총간』 88, 420면.

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이더라도 기상이 저상(沮喪)되지 않고 당당한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고, 그 당당함이 시나 노래로 표현될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철령가>에 드러난 “고신원루(孤臣冤淚)”의 표현이 기상의 저상을 직접 드러낸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자신이 처한 처지가 슬프고 괴롭다고 하고 자신이 그렇게 된 상황이 부당하다고 인식할지라도 그것을 기상이 저상(沮喪)된 시나 노래로 표현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자신을 그런 상황으로 몰아간 사람을 포함한 가해자에 대한 태도는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특히 임금에 대한 비판이나 원망은 표면화시켜서는 곤란하다고 보는 태도가 중심을 차지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3. 애군불망지성(愛君不忘之誠)의 태도

그런데 17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철령가>에 대한 반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노래가 지닌 특성을 임금을 사랑하여 잊지 못하는 정성으로 보고 오히려 이를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한 임금의 태도를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송시열의 반향이 그 단적인 예인데, 정치 국면이 바뀐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은 『서백사철령가후(書白沙鐵嶺歌後)』에서 <철령가>의 성격을 임금을 사랑하여 잊지 못하고 정성이 음영하는 사이에 저절로 나타났다고 평가하면서, 오히려 이항복을 양이(量移)시키지 못한 임금에 대한 은근한 비난까지 이끌고 있다. 여기에는 계해반정[1623]으로 정권을 잡은 쪽의 사람들이 광해군과 그 당시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철령 높은 곳에 묵은 구름이 나는데
 날고 날아서 어디로 가는가?
 바라건대 외로운 신하의 몇 줄기 눈물을 띠어

비를 만들어 종남산과 백악산 사이로 가서
격루의 옥난간에 더하여 뿌리소서.

*번역된 이 <철령가>는 수조사(水調詞)의 문체(文體)를 본뜬 것이다.

이는 백사 이 문충공이 북청(北靑)으로 귀양 갈 때 지은 <철령가>이다. 공은 비록 유리 곤궁(流離困窮)한 처지에 있었으나, 임금을 사랑하여 잊지 못하는 정성이 음영하는 사이에 이처럼 저절로 나타났는데, 저 임금의 충신을 얻지 못했다 하여 곧 원노(怨怒)와 분격(憤激)의 뜻을 두는 자는 과연 무슨 마음인가. 폐조가 후정에서 잔치하며 놀다가 어떤 궁인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는 그것이 공의 소작임을 알고 추연(愀然)해진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리를 파하였으니, 그 성시(聲詩)의 사람을 감동시킴이 이와 같았다. 그러나 끝내 송 신종(宋神宗)이 수조사에 감동되어 소동파(蘇東坡)를 양이(量移)시키듯 하지 못하고 마침내 공으로 하여금 먼 변방에서 죽게 하였으니, 이것이 그 존망의 길이 다르게 된 것이다.

기억하건대, 지나간 천계(天啓) 신유년(1621, 광해군13)에 폐조 또한 군소배의 무함(誣陷)과 기망(欺罔)을 미워하여 하교하기를,

“김제남(金悌男)은 그대들의 덕(德)이 된 지 오래다. 오늘날 의논하는 자가 매양 김제남을 말하는데, 말이 신기하지 않고 듣기도 피로하니, 이 말은 이제 그만두라.”

하였다. 그렇다면 폐조도 군소의 간혹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니, 군소배의 간혹을 알았다면, 공의 충성되고 어짙을 알았음이 더욱 분명하다. 그러나 위복(威福)이 이미 아래로 옮겨져서, 은택이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다가 마침내 운수가 오래가지 못하기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천 년 뒤에라도 이 노래를 듣고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사람의 마음이 없는 자이다.

승정 기원 후 연 월 일에 은진 송시열이 삼가 쓰다.²⁵⁾

25) 宋時烈, 『書白沙鐵嶺歌後』, 『宋子大全』卷148, 『한국문집총간』113, 180면
“鐵嶺高處宿雲飛, 飛飛何處歸, 願帶孤臣數行淚, 作雨去向終南白嶽間, 沾灑瓊樓玉欄干 *右翻鐵嶺歌, 效水調頭詞體, 右白沙李文忠公北遷時鐵嶺歌也. 公雖在流離困厄之際, 而愛君不忘之誠, 自然形於吟詠之間者如此. 彼不得於君而便有怨怒憤激之意者, 果何心哉. 廢朝遊宴後庭, 聞一宮人唱此, 問知爲公作, 愀然不樂, 因泣下而罷酒, 其聲詩之感人也如是夫. 然終不能如宋帝感水調詞而東坡得蒙量移, 卒使公歿於窮荒, 此其所以存亡之異途也. 記昔天啓辛酉間, 廢朝亦惡群小輩誣罔, 教曰, 悌男之爲若德久矣. 今之議者, 每以悌男爲言, 語不新奇, 聽亦疲勞, 此言沆可

송시열이 제시한 <철령가>의 번가(翻歌)²⁶⁾에서는 『청구영언(진본)]을 비롯한 다른 가집에 수록되어 있으면서 기상의 저상(沮喪)이라는 논의를 일으켰던 “고신원루(孤臣冤淚)”가 “고신수행루(孤臣數行淚)”로 바뀌어 있다. 본질적으로 기상의 저상에는 “눈물[淚]” 자체가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실제 “원루(冤淚)”가 “수행루(數行淚)”로 바뀌면서 전체의 의미망에 변화가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항복이 처음에 노래한 <철령가>에 “고신원루(孤臣冤淚)”라는 표현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청될 수도 있으나, 일단 한역가에서 표현을 완화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²⁷⁾ 결국 “고신수행루(孤臣數行淚)”로 조정하고 나니 슬픔의 정서는 있어도 원망의 정서는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당대에 “원망과 노여움, 성냄과 부딪힘의 뜻[怨怒憤激之意]”이라고 지목했던 부분이 사라진 셈이 되기 때문이다. “임금을 사랑하여 잊지 못하는 정성[愛君不忘之誠]”이 절로 드러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고 보면 노래 자체가 지닌 태도는 염려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었고, 결국 문제는 일의 처리와 관련된 것으로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진 것이다. 노래가 궁금(宮禁)에까지 전해지며 광해군도 알게 되어 추연(愀然)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였고, 뒤에 폐모론(廢母論)을 밀어붙였던 사람들에게 대한 비판까지 했다고 했으니, 이항복의 정당성도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노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노래를 부르게 되고 수용되는 과

休矣。然則廢朝非不知群小之奸兇矣，知群小之奸兇，則知公之忠賢也，尤益明矣。而威福既已下移，只屯膏泣血而竟至於不長，可勝歎哉。千載之下，聞此歌而淚不下者，眞所謂無人心者也。崇禎紀元之年月日，恩津宋時烈謹跋。」최재남, 『관서·관북 지역의 시가 향유 양상』, 『한국고전연구』 24집(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43면 참조.

26) 송시열의 <鐵嶺歌>의 譯歌 시기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송국택의 <鐵嶺高>가 지어진 것이 인조 10년(1632)이고 이미 “當時未灑玉蘭干” 등의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송시열이 25세 이전에 한역한 것으로 보는 데에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7) 실제 <철령가>의 한역가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한역에 차이를 보이는 점이 바로 이러한 반향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역가에 “孤臣冤[怨]淚”로 표현한 경우는 南九萬, 李福休, 元世洵, 역자미상 등이고, “孤臣數行淚”를 포함하여 “孤臣淚”, “孤臣雙淚”, “孤臣涕淚” 등으로 완화한 경우는 宋時烈, 李其休, 成海應, 徐有英 등이다. 김문기·김명순 편저, 『시조·가사 한역가전서』 1(태학사, 2009), 315~318면 참조.

정에 대한 방향으로 시선을 돌림으로써 이 노래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정치적 맥락과 관련하여 이 노래를 이해하려는 시각이 그것이다. 이항복에 대한 흥미가 <철령가>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유도하고 있고, 이는 당시 정국을 주도했던 사람들과 이를 묵과했던 임금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송시열은 송나라 신종(神宗)이 소동파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시안(詩案)으로 위기에 몰린 그를 황주(黃州)에서 여주(汝州)로 옮기게 하면서 은택을 베푸는 일을 환기하고 있다.

소동파(蘇東坡:軾, 1036~1101)의 양이는 송나라 신종 때에 왕안석과 대립 관계에 놓였을 때 지호주(知湖州)를 맡아서 표문을 올리고 시로 풍간했다가 이정(李定) 등에게 잡혀서 대옥(臺獄)에 갇혔는데, 신종의 배려로 황주 단련부사(黃州團練副使)로 안치된 뒤에, 원풍 3년(1080)에 신종이 다시 등용하고자 하였으나 당로(當路)인 왕규(王珪) 등이 반대하여, 임시로 증공(曾鞏)을 등용하면서도 그의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종 임금이 직접 편지를 써서 여주(汝州)로 옮기게 하고, “소식이 쫓겨나 지내면서 허물을 생각하느라 세월을 보냄이 더욱 깊고, 인제는 실로 어려운 것이니 차마 끝내 버릴 수 없다.(蘇軾黜居思咎 閱歲滋深 人材實難 不忍終棄)”라고 했던 일²⁸⁾을 가리킨다. 뒤에 소식이 금릉으로 가다가 몰려나 지내던 왕안석(王安石)을 만났는데, 이때, “조정에 있을 때에는 말을 하고, 바깥에 있을 때에는 말하지 않는 것이 임금을 섬기는 상례일 따름이다.(在朝則言 在外則不言 事君之常禮耳)”라고 하기도 했다.

그리고 앞의 인용에서 소식이 지은 수조사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을 가리키는지 단정 짓기 어렵지만 <적벽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적벽부>의 “객이 통소를 불면서, 노래에 기대어 화답하니, 그 소리는 슬퍼서, 원망하듯 그리워하듯, 우는 듯 호소하듯, 가늘고 긴 여음이 실같이 끝이 없네.(客有吹洞簫者 倚歌而和之 其聲嗚嗚然 如怨如慕 如泣如訴 餘音嫋嫋 不絕如縷)”라고 한 부분이 이러한 분위기와 음조(音調)를 자아내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28) 『宋史』 권338, 『蘇軾列傳』, 『宋史』(中華書局, 1990), 10801~10819면.

송시열의 반항은 정치적 국면이 바뀌면서 <철령가>를 부른 이항복이 혐의는 벗고 정당성을 회복하게 되었으니,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임금의 태도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후에 정당성을 확보한 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철령가> 자체가 지닌 의미까지 연결시켜 해석하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임금에 대한 비판이나 원망은 표현하지 않으려고 했던 앞의 다른 시각과 견주면 그 파장이 단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송국택(宋國澤, 1597~1659)이 지은 <철령고(鐵嶺高)>²⁹⁾는 36세인 인조 10년(1632)에 지은 것인데, 함경도 도사로 철령에 이르러 백사 이항복을 조문하면서 흠모의 뜻을 비친 것이다.

한편 19세기 후반에 이항복의 후손인 이유원은 『해동악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후주(後註)에서 “백사 선생의 북천록에 <철령가>가 있는데, ‘차가운 구름이 날아가네[寒雲飛去]’ 등의 말이 있다.”라고 하였다.

만고의 강상으로 한 고개가 높은데
 차가운 구름이 날아가니 내 마음이 걱정되네.
 삼백년 뒤에도 노래가 다하지 않으니
 길이 뜻 있는 선비로 하여금 눈물이 옷깃에 적게 하네.³⁰⁾

기상의 저상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던 “고신원루(孤臣冤淚)”에 대한 언급은 빠지고, “한운비거(寒雲飛去)”에 대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보다 앞서 정조 임금은 『홍재전서』에서 이항복을 평가하면서 “고

29) 宋國弼, 『四友堂先生集』 卷之一, 『한국문집총간 속』 27, 267면, “鐵嶺高, 鐵嶺雖高猶不高, 上有一片宿雲飛, 飛飛向上天門高, 大招巫咸訴金壘, 降爲五采護漢高, 或爲電鏹斬蛇妖, 或爲雷斧震鹿高, 油然生出孝悌心, 大隱之賦韻最高, 宿雲變爲慶雲欄, 蓬萊宮裏內枕高, 千秋萬歲仰五色, 玄武蒼蒼北極高, 當時未灑玉蘭干, 至今恰慰早望高, 湘潭一去雖不返, 詞賦猶懸日月高, 嗚呼弼雲李夫子, 大名高出鐵嶺高, 鐵嶺高, 鐵嶺雖高猶不高. *弼雲李相公謫北青時, 登鐵嶺作歌曰, 鐵嶺高處宿雲飛, 飛飛何處歸, 願帶孤臣數行淚作雨, 去向終南白岳間, 淚灑瓊樓玉欄干.”

30) 『임하필기』 권38, 『해동악부』 <철령가>, “萬古綱常一嶺高, 寒雲飛去我心切, 三百年來歌不盡, 長令志士淚盈袍 * 白沙先生北遷錄 有鐵嶺歌 寒雲飛去等語”

신원루(孤臣怨淚)”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의 인품과 행적과 연결하여 <철령가>가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사람을 감동시킨다고 하였다.

백사 이항복으로 말하면, 덕망과 공로와 문장과 절개 중에서 하나만 얻어도 어진 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한 몸에 겸하였음에랴. 세상에 전하는 우스개들이 꼭 모두 백사의 일은 아니겠지만 나라 안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아끼고 사모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임진왜란으로 선조가 파천하던 날 밤 궁궐을 지키는 위사(衛士)들은 모두 흩어졌는데 혼자서 손수 횃불을 들고 상을 내전으로 인도하였고, 내부(內附)의 의논이 결정되자 개연히 호종(扈從)하겠다고 자청한 사람은 공 한 사람뿐이었다. 당시의 일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데 ‘나라가 전복되는 위기에서 참된 신하를 안다’는 말은 백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는가. <철령가> 중에서, “누가 고신(孤臣)의 원통한 눈물을 가져다가 구중궁궐에 뿌려 줄까.[誰將孤臣怨淚 灑入九重宮闕]”라고 한 구절은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을 쏟게 한다. 참으로 충의가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백 년이 지난 뒤에도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겠는가.³¹⁾

17세기 후반에 <철령가>를 애군불망지성으로 이해하는 시각은 노래 자체가 지닌 성격이나 화자의 태도를 주목하는 입장보다는 정치적 국면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반향이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 초반과는 달리 17세기 후반 이후 정치적 국면의 변화와 함께 정치집단의 단합된 힘이 임금의 권력에 맞설 정도로 강화되면서, 노래와 시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이들 정치집단이 집단적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4. 가곡의 정서의 방향에 대한 논의

이항복의 <철령가>에 대하여 기상이 저하된 것 같다고 염려한 이정구

31) 『홍재전서』 권171, 『일등록』 11, 인물

의 입장은 학문하는 신하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인가를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 <철령가>를 두고 내린 평가라는 점에서는 가곡에서 정서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7세기 초반 시름과 관련한 가곡의 정서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정구와 신희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이정구는 가곡은 시름을 풀 수 있는 장치이고 말을 길게 늘여서 노래로 부르는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가락[腔]이 되기 위한 조건까지 제시하고 있다. 임술년(광해군 14년, 1622)에 명나라 황제의 칙서와 은 3만 냥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온 양지원(梁之垣)의 접반사로 참여하면서 지은 <양감군의 사수시에 차운하다 *병서>³²⁾에서 그 구체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사수(四愁)는 네 가지 시름으로 시수(詩愁), 주수(酒愁), 유수(遊愁), 가수(歌愁) 등이 그것인데, 이 중에서 가수(歌愁)가 시름과 노래와의 관련을 진술한 것이다. 시수(詩愁)에서 시를 읊어서 시름을 달랠 수 있으나, 시로는 마음속에서 우리나라는 시름을 달랠 수 없다고 하였고, 주수(酒愁)에서는 술에 취해 무하향에 들고자 하나 시름이 더욱 깊어진다고 하였으며, 유수(遊愁)에서는 유람을 통하여 세간의 시름을 떨치려고 하나 유람이 끝나기도 전에 서글퍼진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가수(歌愁)에서는 그윽한 회포를 가곡(歌曲)에 부친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시름의 정체는 개인적인 내면의 시름이 아니라 임금 위한 근심이라고 하였다.³³⁾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변된 것이라는 점이다.³⁴⁾

그러면 <가수(歌愁)>에 차운한 이정구의 시를 보도록 한다.

시름을 푸는 데 맘껏 노닐도 소용이 없어
 그윽한 회포를 가곡에 부치고 싶어라.
 말을 길게 늘인 것이 바로 노래이니
 북이나 피리 등 악기들에 비할 바가 아니라네.

32) 『월사집』 권12, 『빈접록 중』, 원제는 <次梁監軍四愁詩 *并序>이다.

33) <詩愁> 7구, “我愁伊何爲主憂”

34) 최재남, 『홍과 시름의 구현 양상 연구』, 『고시가연구』 24집(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268~272면 참조. 시름은 공변된 것[憂]과 개인적인 것[愁]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장군은 호상에 앉아 부질없이 짓대나 불고
장사들은 한갓 연시의 축을 슬퍼할 뿐이네.
어찌 호탕한 노래를 부르면 노래가 격렬하여
가슴속 많은 시름 다 쏟아내느니만 하리요?
시름이 많아 소리에 목이 메면 강(腔)을 이룰 수 없나니
보루가 많은 것이 어찌 대부의 욕됨이 아니라?
고개를 돌려 보면 요동 하늘엔 전란의 먼지가 누르고
한 곡조 노래 마치고 다시 한 번 통곡하노라.
황제께서 등극하여 다스리시니 요망한 오랑캐가 숨을 죽여
성운을 담은 그 운음 촛불의 광명 같구나
틀림없이 개선가 부르고 명당에 조회하리니
공께선 허벅지에 살이 생긴다고 시름하지 마오.
解愁無賴恣遊躅 欲把幽懷付歌曲
言之永者是爲歌 不比匏土與革木
將軍漫弄胡床笛 壯士徒悲燕市筑
爭如浩歌歌激烈 寫盡胸中愁萬斛
愁多聲咽不成腔 多墨寧非大夫辱
回首遼天戰塵黃 一曲歌終復一哭
聖皇御極妖孽伏 恩綸渙發光明燭
會見凱歌朝明堂 願公莫愁髀生肉

이 시는 시름과 노래와의 관련을 말하고 있는데, 이미 사수(四愁)의 앞 세 수에서 시로 시름을 풀거나, 시로 풀 수 없을 때 술로 잊거나, 술로 풀 수 없어서 유람으로 시름을 떨친다고 했는데, 마음껏 유람하는 것도 소용이 없어 그윽한 회포를 가곡에 부친다고 한 것이다. 이때의 가곡은 물론 특정한 갈래 명칭이 아니라 일반적인 노래를 가리키는 것이니, 노래를 통해 시름을 푸는 방법이 사수(四愁) 가운데 마지막으로 채택된 것이다. 노래[歌]는 말을 길게 늘인 것[永言]이니 포토(匏土)와 혁목(革木)과 같은 악기에 견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내포적인 의미는 후금(後金)에 대해 염려할 것이 없다는 외교적 언술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호탕한 노래를 격렬하게 불러서 가슴속의 많은 시름을 쏟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름이 많아서 소리에 목이 메면 가락(腔)을 이룰

수 없다고 하였다. 호탕한 노래를 격렬하게 불러서 시름을 쏟아내기는 하되, 소리가 목메게[聲咽]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없다. 목메게 하는 소리는 가락이 될 수 없다고 한 진술이 가락[腔]의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정구는 강(腔)에 대하여 엄격한 준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강(腔)이 격식을 갖춘 노래이면서 동시에 시름이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고 중정(中情)의 절제를 지키는 것으로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³⁵⁾

한편 <가을밤 앓는 중에 흥취부와 이별하며(秋夜病中別洪就夫)>³⁶⁾에서 는 쓸쓸하거나 슬픔이 너무 지나친 것을 경계하고 있다.

쓸쓸한 낙엽이 차가운 창을 때리는데
바람은 날리는 서리를 말아 밤 등잔을 치네.
이 회포를 쏟아서 이별의 말을 삼고자 하니
앓는 중이라 쓸쓸하고 끊어져서 강을 이루지 못하네.
蕭蕭落葉打寒窓 風捲飛霜撲夜釭
欲寫此懷爲別語 病中淒斷不成腔

앓는 중에 읊은 것이라 쓸쓸하고 끊어져서[淒斷] 강(腔)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병중에 이별의 자리에 제대로 노래로 부르거나 시를 지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주변의 상황이나 내면의 태도가 강(腔)을 이루는 데에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7세기 초반 신흘(申欽, 1566~1628)의 작품에서도 노래가 시름을 푸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흘의 다음 작품도 사실 이항복과 같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되어 경기도 김포로 방축되어 지내던 시기에 지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가곡의 정서 방향과 관련하여 함께 다룰 수 있을 것이다.

35) 최재남, 『이정구의 가곡과 풍류에 대한 인식 고찰』, 『반교어문연구』 32집(반교어문학회, 2012), 214~215면.

36) 『월사집』 권17, 『권응록 중』, 원제는 <秋夜病中別洪就夫>이다.

노래 삼긴 사름
 시름도 하도 할샤.
 닐러 다 못 닐러 불러나 푸뚝든가.
 眞實로
 풀릴 거시면 나도 불러 보리라. 『靑丘永言(珍本)』 144

그런데 이 작품은 다음 작품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步虛子 뚝흔後에
 與民樂을 니어흐니
 羽調界面調에 客興이 더어세라
 아히야
 商聲을 마라 히저물가 흐노라 『靑丘永言(珍本)』 145

앞의 작품에서 노래가 시름과 매우 깊은 연관을 가진 것이라고 인식하고, 노래를 불러서 시름을 풀겠다고 하고 있는데, 뒤의 작품에서는 <보허자>와 <여민락>의 작품을 들면서 우조(羽調)와 계면조(界面調)의 곡조를 말한 뒤에 상성(商聲)을 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다. 상성(商聲)에 대한 경계는 가을의 소리이면서 애달프고 구슬픈 가락인 상음(商音)에 대한 배제라고 할 수 있다. 상성은 가을의 소리로 슬픈 음을 가리키고, 상가(商歌)는 비통한 노래를 가리킨다. 상가는 진나라 영척(甯戚)의 <반우가(飯牛歌)>를 말하는데, 진나라 영척이 제나라 환공에게 벼슬을 하고자 하였으나 너무 곤궁하여 환공을 만날 수 없자, 상려(商旅)가 되어 제나라에 들어가 저녁에 곽문(郭門) 밖에 머물렀는데, 마침 환공이 교외에서 손님을 맞이하자 밤에 소를 먹이면서 소똥을 두드리며 상가를 슬프게 불러서 환공에게 등용되었다는 고사³⁷⁾가 있다. 이렇듯 상가는 자신의 내면의 슬픔을 드러내어 벼슬길에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포함된 노래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흙이 상성(商聲)을 경계한 내면에는 김포에 방축된 현실의 입장에서 영척과 같은 태도는 보이지 않겠다는 다짐이 배어있

37) 『회남자(淮南子)』 「도응훈(道應訓)」.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흠이 상성에 대해 경계한 것은 <증청음(贈淸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백설>과 <녹기금>, <황종>과 <상음>을 견주면서 상음(商音)은 타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다. 슬픔을 드러내는 노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대는 백설을 노래하며
 나의 녹기금에 화답하였네.
 황종이 남은 울림이 있으니
 상음은 타지 말게나.
 슬픈 바람이 서북에서 불어와
 어둑하게 뜬 구름이 흐려지네.
 세상에는 자야의 귀가 없으니
 누구일까? 내 마음에 어울릴 사람이.
 以君白雪歌 和我綠綺琴
 黃鐘有餘響 且莫彈商音
 悲風西北來 漉漉浮雲陰
 世無子野耳 誰歟諧我心³⁸⁾

17세기 초반 이정구와 신흠의 사례를 통하여 가곡의 정서와 그 방향성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였다. 이들 두 사람은 관료문학의 핵심에 있었다는 위상도 있지만 가곡의 정서의 방향에 대하여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곡이나 노래가 시름을 푸는 데서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하면서도, 이정구가 이항복의 <철령가>에서 기상의 저상을 염려하거나, <가수(歌愁)>에서 시름이 너무 많아 목메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여 경계하는 것과, 신흠이 구슬픈 가락인 상성(商聲)이나 상음(商音)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모두 공통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17세기 초반에 정서의 방향에 대한 일관된 준거를 가지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8) 『상촌집』 권5, <贈淸陰>, 『한국문집총간』 71, 344면.

5. 소결

이상에서 이항복의 <철령가>에 대한 반향을 당대인 17세기 초반과 17세기 후반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7세기 초반 <철령가>가 지어진 당대에 이정구가 제기한 태도는 학문하는 선비의 입장에서 기상의 저상(沮喪)을 염려하는 시각이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도 기상이 저상되지 않고 당당한 자세를 지녀야 하고, 시나 노래에서도 그러한 자세가 드러나야 한다고 본 것이다. 신하의 입장에서 굴원의 원망어린 태도를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내면이 포함되어 있다.

17세기 후반 송시열이 <철령가>에 보인 반향은 애군불망지성으로 파악하면서 당대의 정치적 상황과 연결시켜 이해하려는 시각이었다. 한역하는 과정에서 원망과 노여움 등의 표현을 완화하기도 하면서, 인물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당대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너그럽지 못한 임금에 대한 비판적 시각까지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임금의 입장에서 신하를 대접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이루고 있다.

결국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인간이 드러낼 수 있는 내면의 토로에 대한 이해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이 <철령가>의 반향에서 드러난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정구로 대표되는 시각이나 송시열로 대표되는 시각 모두 유효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각의 변화에 대한 정밀한 이해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 후반의 정치적 국면의 변화가 몰고 온 문학작품에 대한 해석의 전환을 어떤 준거로 설명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치적 국면의 상황에서 인물에 대한 평가 또는 재평가를 바탕으로 작품에 대한 재해석을 할 경우 고려해야 할 상수(常數)와 변수(變數)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두 가지 방향으로 드러난 반향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史記』(中華書局, 1982)
『宋史』(中華書局, 1990)
『莊子』
『全宋詩』 14(北京大學古文獻研究所, 1993)

- 宋國澤, 『四友堂先生集』, 『한국문집총간 속』 27
宋時烈, 『宋子大全』, 『한국문집총간』 113
申欽, 『상촌집』, 『한국문집총간』
申欽, 『국역 상촌집』
李裕元, 『국역 임하필기』
李裕元, 『임하필기』, 『한국문집총간』
李廷龜, 『국역 월사집』
李廷龜, 『월사집』, 『한국문집총간』
李恒福, 『국역 백사집』
李恒福, 『백사집』, 『한국문집총간』
正祖, 『홍재전서』
『중문대사전』

2. 단행본

- 김문기·김명순 편저, 『시조·가사 한역가전서』 1(태학사, 2009)
박해남, 『상촌 신희문학의 궤적과 의미』(보고사, 2012)
조해숙, 『조선후기 시조한역과 시조사』(보고사, 2005)

3. 논문

- 김석희, 『상촌 신희 시조 연구』, 『국어교육』 109(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2), 317~345면.
박영민, 『백사 이항복 시세계의 한 국면』, 『한국인물사연구』 8(한국인물사연구소, 2007), 25~46면.
성기옥, 『신희 시조의 해석 기반』, 『진단학보』 81집(진단학회, 1996), 215~241면.
이종목, 『이항복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 7집(한국한시학회, 2002), 323~381면.
조성진, 『신희의 악부 인식과 민족시가의 재인식』, 『한국시가연구』 25집(한국시가

학회, 2008), 63~103면.

최재남, 「유배 체험의 내면화와 시적 변용」, 『한국한시연구』 13집(한국한시학회, 2005), 387~419면.

최재남, 「흥과 시름의 구현 양상 연구」, 『고시가연구』 24집(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261~294면.

최재남, 「이정구의 가곡과 풍류에 대한 인식 고찰」, 『반교어문연구』 32집(반교어문학회, 2012), 203~231면.

최재남, 「관서·관북 지역의 시가 향유 양상」, 『한국고전연구』 24집(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31~72면.

Two Aspects of the Response to the <Cheollyungga>

Choi, Jae Nam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research the response to the <Cheollyungga(鐵嶺歌)> sung by Lee Hangbok. There are sorrow and tears to monarch in <Cheollyungga> as a Sujoga(水調歌).

One aspect of response is feeling anxiety about the dejection of spirit, being brought by Lee Jeonggu.

The other aspect of response is to prize the devotion and never forgetting to monarch, being brought by Song Siyeol.

The one aspect of response is related to the attitude of a subject, being connected with the attitude of Gulwon(屈原) to King Whoi(懷王) in Cho(楚) Dynasty. The other aspect of response is related to the attitude of monarch, being connected with the attitude of the emperor Shinjong(神宗) to So Dongpa(蘇東坡) in Song(宋) Dynasty.

An attitude of feeling anxiety about the dejection of spirit is taking root in the reading experience of a learned man. A learned man has to control his mind consistently being at a crisis, for example exile. He has to express his generous heart, and doesn't have to express his sorrow and grudge and so on.

An attitude to prize the devotion and never forgetting to monarch is taking root in the toleration of the monarch to a subject. In this case, there are turnover political situations. So a new governor take guide new paradigm to the benefit of his party.

An attitude of feeling anxiety about the dejection of spirit is continue in the first half period in 17th century, and a turnover political attitude was repealed in the second half period in 17th century.

In Conclusion, we are able to classify the attitude to respect to Kagok as feeling anxiety about the dejection of spirit and the devotion and never forgetting to

monarch.

keywords : <Cheollyungga(鐵嶺歌)>, Lee Jeonggu, dejection of spirit, Song Siyeol, Gulwon, So Dongpa, Sujoga, the attitude of a`subject, the attitude of monarch.

접수일자: 2014. 3. 31.

심사기간: 2014. 3. 31. ~2014. 5. 10.

게재결정: 2014. 5. 10.